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해운대제일교회의 사명에 따른 네 번째 비전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며,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까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서부터, 이웃집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함을 알아야 한다.

(마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자이심에도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무죄하심에도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죄의 비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돼지 떼가 몰사함으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시면서 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실례) 오래전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모지 하관예배 시 두 가지 결심.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겠다.”
- ② “내 인생을 진정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겠다.”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만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재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명예나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그러한 것들에 내놓을 만큼 값싸지 않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동일한 명령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마28:19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막16:15)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눅24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눅24:46-47)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창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신약성경 (갈3:8)에 보면, 이 말씀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표현을 바꾸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방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차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19:5-6)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출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의 우주적 전망을 망각하고 선택의 교리를 편의의 교리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세계선교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넘어 열방을 가슴에 품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질문1)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질문2) 당신은 지금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보십시오.

질문3) 다음의 성구들을 읽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보십시오.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눅11: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